

50년 전투기 소음 사라지고 세계적 테마파크 들어서면...

공군비행장 이전 애타게 기다리는 원도산 사람들

도시재생사업 실시 2년을 보낸 원도산 마을 주민들 사이에 공군비행장 이전사업에 대한 기대가 날이 높아져가고 있다. 공군비행장 이전사업은 이전 대상지역을 전남의 1-2개 군지역으로 한다는 원론적 결정만을 한 채 해당지역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빠져있었으나 최근 광주시의 광주비행장 부지 이용계획 발표와 지난달 25일 열린 광주 전남 상생협의회를 계기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원도산마을 주민들로서는 1965년 문전읍을 공군부대와 활주로 부지로 수용당한 후 마을이 급 쇠락했던 아픈 역사를 겪은 터라 공군비행장이 이전이 실현되면 마을의 옛 번영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남다르다. 그러나 앞길은 험난해 보인다.

상생 협력을 내걸었던 민선 7기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달 25일 광주시청에서 만나 두 광역단체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설치한 '광주 전남 상생협의회'지만 두 단체장이 만난 건 1년3개월여만이다. 협의회에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과 복합혁신센터 조성에 대해 합의문이 작성됐지만 최대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문제'에 대해서 이렇다할 논의를 하지 못했다.

두 시도지사 모두 '관왕지래'와 '동심판

광주·전남상생협의회 열렸지만 공군비행장 이전 입장차 여전
광주시 국제테마파크 조성 구상 국내외 관광객 물리며 활기
중요한 건 주민 행복이 1순위

리' 등 한자성어를 써가며 새로운 미래 천년을 강조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확연했다. 김 지사는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국책 사업"이라며 "관련 자치단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 주도하에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지난해 8월 1차 상생발전위와 비교하면 후퇴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면 군 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으나 이번엔 "정부 주도 하에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시도상생협의회가 군 비행장 이전문제에 대해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두단체장에게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다. 광주 전남 지역사회와 전 언론이 공군비행장 이전사업에 대해 시도지사의 의견전근을 주문하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원도산마을 주민들이 공군비행장 이전에 대해 부푼 꿈을 꾸게 하는 또 다른 일이 바로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부지활용방안 발표다. 지난 10월 31일 광주일보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디즈니랜드와 같은 대규모 국제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주 군 공항 부지 개발 로드맵'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시는 올해 10대 시책으로 정한 '군 공항 종전부지 로드맵 수립'을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2024년 군 공항이 전남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전제 아래 2028년까지 광주 공항 종전 부지에 '스마트시티 및 테마파크' 개발을 완료한다는 기본 구상을 갖고 있다.

상무지구 면적의 2.5배, 여의도의 3배에 달하는 8.2km(250만평) 수준의 광활한 군공항부지에 상하이 디즈니랜드와 같은 대규모 국제테마파크와 함께 광주 또는 군공항 부지 전체를 견인할 기업 또는 시설을 유치하는 스마트시티 조성 방향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오전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포옹하고 있다.

이 광활한 부지는 앞으로 광주광역시, 더 넓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공간이다. 50년 가까이 군공항으로 사용된 이곳은 산도 언덕도 없는 드넓은 평지이다. 이점은 앞으로 종전부지 개발에 있어 큰 이점이 된다.

종전부지가 개발됨에 따라 이곳과 담장 하나 사이인 원도산마을 또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넓은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 인접한 원도산마을의 미래를 크게 바꿀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테마파크는 용인시에 위치한 '에버랜드 리조트'이다. 에버

랜드 리조트는 테마파크, 워터파크, 동물원 등을 갖춘 대한민국의 가장 큰 대단위 리조트이다. 2013년 누적 방문객 수 2억명을 돌파하며 매해 수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는 놀이공원이다. 용인시는 에버랜드를 기점으로 주변에 위치한 숙박업소와 식당, 관광명소를 통해 동시에 많은 사람의 발걸음을 모으고 있다. 에버랜드 하나만 보고 용인까지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를 떠올리면 딱히 떠오르는 관광명소 몇개를 제외하면 마땅히 추천해 줄 곳이 없다.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지만 수도권에 비하면 문화생활의 기회도 공간도 매우 부족하다. 광주, 전남권을 통틀어 보아도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와 같은 큰 놀이공원은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를 둘러보았을 때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세계적으로 곳곳에 자리잡은 테마파크가 있다. 바로 디즈니랜드이다.

디즈니랜드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자회사인 월트 디즈니 파크 앤 리조트가 운영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군 에너하임에 위치한 테마파크이다. 디즈니랜드는 전세계 곳곳에서 운영되며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있는 명소이다. 일반적인 테마파크와 달리 디즈니 영화 속 공간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으며 영화 속 캐릭터의 퍼포먼스, 건축물, 놀이기구를 통해 수많은 팬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디즈니랜드는 도쿄,

홍콩, 상하이, LA에너하임, 올랜드, 파리에 위치하고 있다. 각각의 도시마다 다른 테마를 조성하고 다양한 랜드마크를 보여준다. 해외 관광객을 또한 디즈니랜드가 위치한 도시를 많이 방문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생긴 디즈니랜드는 상하이 디즈니랜드이며 랜드마크는 '마법에 걸린 동화의 성'이다. 또한 전 세계 디즈니랜드 퍼레이드 중 가장 많은 캐릭터가 등장한다.

만약 군공항 이전 후 이 넓은 부지에 대한민국의 최초의 디즈니랜드가 들어선다면 광주의 관광사업은 큰 변화를 보일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광주를 찾아올 수 있다. 사람이 모인다면 그 주변 상권은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되어있다. 테마파크 주변으로 숙박업체, 식당, 관광지가 생기고 그에따라 일자리들이 새롭게 넘쳐날 것이다. 그 일자리를 찾아 광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통해 또한 광주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무궁한 변화의 장인 종전부지와 인접한 원도산마을은 지금의 모습과 180도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군공항 이전과 더불어 임방울 대로가 연장되고 종전부지의 세계적인 테마파크가 들어선다면 그 미래는 더 이상 지금의 원도산마을처럼 고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종전부지와 원도산마을의 개발을 두고 많은 의견과 생각이 절실히 필요하다. 결국 그곳에 살아갈 주민들의 행복이 제1순위가기 때문이다.

/송은지 학생기자

광주 공군비행장 이전, 국방부가 적극 나서라

2014년부터 추진중인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예비 이전지 후보 선정 단계를 두고 이전대상지인 전남 지자체와 의견 대립이 심화되며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미궁에 빠졌다.

광주 군공항이전 사업 실행 후 지자체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3년째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고충만 심화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아닌 대립만 심해지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국방부에게 책임을 묻지만 국방부에게서 돌아오는 뚜렷한 대답은 없었다.

기다리다 못한 시민들이 비슷한 갈등을 겪고있는 대구, 수원시민들과 함께 행동에 나섰다. '광주·대구·수원 군 공항 이전 연합시민단체(연합시민단체) 회원 7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군 공항 이전 쟁기대회'를 열고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을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광주·대구·수원 시민 한마음 국방부 앞에서 이전 쟁기대회
지자체 갈등 증대하라 촉구

참가시민들은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라." "군공항 이전 적정 통보를 받고도 3년이 지났다. 국방부는 조속히 예비 이전후보지를 발표하라"등 구호를 외치며 2시간동안 쟁기대회를 진행했다.

연합시민단체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제정됐고, 국방부도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통해 광주와 대구, 수원에 '적정' 통보를 한 지가 3년이 넘었는데 군 공항 이전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군 공항 이전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강력히 추진해야 함에도 국방부는

소수 반대의견을 핑계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이전사업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군 공항 이전대상 지역 주민 설득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중재에 해결자로 나서라"며 "군 공항을 신속하게 이전하는데 현행 특별법상 장애 요인과 문제점이 있다면 신속하게 법령 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군 공항을 놓고 광주와 대구, 수원 주민들은 조속한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은 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지자체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광주 군공항의 경우 국방부는 작전성 검토를 거쳐 무안과 해남군을 이전 적합 대상지로 압축해놓고도, 해당 자치단체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설명회·공청회·행정협의 등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발표를 미루고 있다.

/송은지 학생기자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는 7일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 수원시 시민단체와 함께 쟁기대회를 열고 군공항 이전부지를 조속히 선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제공>



숨겨둔 무릉도원,

도시속의 전원
원도산마을로 놀러오세요.

